

바다위 달리는 짜릿한 자전거 투어 고흥서 즐긴다

해안·우주 테마 ‘자전거 투어’ 문체부 여행 공모 ‘전국 1위’ 선정
블루마린·스타로드 2개 코스 자전거 여행상품 9월중 본격 운영

바다 위를 달리고, 산 끝까지 오르는 짜릿한 사이클 라이딩이 고흥에서 가능하게 됐다.

고흥군이 해안과 우주를 테마로 기획한 ‘자전거 투어’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에 전국 1위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서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끝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초의 체류형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현장 평가에서 고흥만 특유의 우주·섬을 연계한 획기적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와 군비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로 홍보 및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중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타지역 여행객 유입과 함께 지역 특산물과 음식 체험, 주변 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녹동저금도권의 ‘블루마린’과 팔영산나로도권 ‘스타로드’ 2개 코스로 1박2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블루마린 코스는 거금도·연흥도·소록도 등을 거치며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총 40km에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스타로드 코스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팔영산과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50km 길이에 3시30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협력여행사 지정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전거 동호회 협력 그리고 조기 예약 할인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 보험 가입, 고흥경찰서 에스코트, 코스별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낫길·서핑·대교·맛투어 등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섬 낚시·해양레저와 결합한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만의 독자적인 고품질 여행상품을 개발해 국내 지자체에서 주목하게 될 획기적인 관광모델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흥군 자전거 투어는 마치 SF 판타지 영화 ‘ET’의 하늘을 나는 자전거처럼 짜릿하고 황홀한 체험으로, 전국 라이더들의 사이를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고흥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에 전국 1위로 선정됐다. 자전거 투어 코스인 우주발사전망대(왼쪽)와 거금대교.



보성녹차마라톤 다음달 3일 ‘스타트’…7800명 질주

역대 최다 참가자 기록

풀·하프 코스·10km·5km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대회 사상 최다 마라토너 7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달 3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및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다.

보성의 명품거리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따라 펼쳐지는 이 대회는 완만한 경사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달리는 코스로, 마라토너들에게 기록을 세우기 좋은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대회는 풀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7일 참가 접수 마감 기준 78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해, 역대 최다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5km 참가자는 런닝화 또는 기념 티셔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풀·하프·10km 참가자는 반바지 또는 선글라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센터를 방문해 배편 호를 제시하면, 1인 5000원의 할인 가격으로 해수욕장탕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대회 당일을 맞아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

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코스 구간별 교통 통제 안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 체계, 자원봉사자 배치 등 체계적인 대회 운영 준비하고 있다.

대회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다 참가자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국 마라토너들이 기대하는 명품 코스답게, 참가자 모두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레이스를 즐길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푸르른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며 차향 가득한 보성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매년 전국 마라톤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중앙동 지사협, ‘건강100세 희망드림’

경로당 4곳 건강관리·치매 예방 교육

여수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고소아파트 경로당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 ‘건강100세 희망드림(Dream)’ 사업을 운영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앙동 관내 4개 경로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어르신과 중앙동 지사협 위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절기 건강 관리 방법 교육과 치매 예방을 위해 인

지 자각에 도움이 되는 가족 파우치 만들기가 이뤄졌다.

홍진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동 지사협은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본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 인지 저하와 고독감 및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현수막·피켓 들고 도심 시가행진

구례군이 제44회 군민의 날을 맞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구례군과 구례옥외광고협회가 협력하여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펼쳐졌다. 특히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이날 군청 앞 광장을 출발해 구례읍 중심가를 따라 도심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렸다.

또한, 행사장 내 설치된 홍보부스에서는 캠페인 안내문 배포, 불법 광고물 신고 방법 안내, 퀴즈 이

벤트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주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번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불법 광고물 발견 시 군 홈페이지 또는 지역개발과 공공건축팀(061-780-284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40만 그루 철쭉 폭삭 피었수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철쭉동산’에 철쭉이 만개해 전국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철쭉동산 일원 약 3만8000㎡의 면적에 40만주의 철쭉이 식재되어 있으며, 매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농수산물, 싱가포르 첫 수출…동남아 진출 교두보

해룡산단서 7개 품목 상차식

순천시 농수산물의 싱가포르 첫 수출길이 열렸다.

순천시는 지난 23일 순천시농식품수출협의회와 함께 해룡산단 내에 위치한 ‘경덕농수산’에서 싱가포르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초 순천시가 싱가포르 식품박람회(FHA)에 참가하고 현지 유통망과의 수출 상담 및 업무협약을 통해 성사된 동남아 신시장 개척의 성과로,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인 엘앤씨(LNC Pte Ltd)를 통해 총 1000만원 규모의 농산물 4개 품목과 건어물 3개 품목이 수출된다.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 중심 국가이자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잇는 외교 허브로, 세계 2~3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



만 물류 중심지이다. 이번 순천시 농수산물의 첫 싱가포르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차식은 단순한 물류 출발이 아닌, 순천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